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내셔널 그리드가 올 11월부터 전기요금을 64%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전기 사용량을 나타내는 미터기

올 겨울 매사추세츠 전기 요금 폭탄, 60% 넘는 인상

천연가스 비용 폭등으로 내셔널 그리드 인상 불가피
난방요금 인상과 더해질 땐 겨울 유틸리티로 허리 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 겨울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를 사용하는 매사추세츠 한인들은 지난 겨울에 비해 무려 60% 이상 인상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 전력회사는 21일 매사추세츠 주 공공유틸리티부(DPU)에 가격인상 요율을 신청했다. 지난 겨울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은 \$179

였으나 11월 1일부터 시작될 올 겨울 요금은 지난해보다 64% 오른 \$293로 폭등한다. 겨울 요금은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이번 전기요금의 폭등은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에 기인한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전력 공급은 절반 이상이 천연가스 발전소가 차지하고 있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8면으로 계속

2022년 매사추세츠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 10월 8일 개최

선착순 200명에게 김치를 선물로 제공
한복을 입은 한인들도 김치를 선물로 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지난해 인기에 진행됐던 김치 페스티벌을 올해도 10월 8일 토요일 렉싱턴 헤이스팅스 파크에서 개최한다. 김치를 미국사회에 알리고자 시작한 이 김치 페스티벌에서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3종을 만들어서 선물로 증정하고 판매하기도 한다. 이번 김치 페스티벌은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매사추세츠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스톤코리아가 후원한다.

한인회 측은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을 맞아 행사에 참여하신 한인들과 외국인들 선착순 200명에게 김치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한 직접 담은 김치를 판매하고, 함께 만들면서 김치 담그는 방법도 현장에서 전수한다. 한인회는 올해에도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김치를 선 >>2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보엽 바이올리니스트 보스턴 심포니에서 은퇴

(보스턴=보스톤코리아) 이경애 서울대 동창회 홍보담당 = 보스턴 심포니에서 오랫동안 제1 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하던 황보엽씨(75)가 8월 오케스트라에서 49년 만에 은퇴했다.

1973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계 단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던 시절에 입단한 그는 보스턴 심포니에서 매리샬턴스톨 기부 영구 후원기금 연주자(Mary B. Saltonstall chair, endowed in perpetuity), 보스턴 팝스에서 은시 및 줄리언 코헨 기부 영구 후원기금 연주자(Eunice and Julian Cohen chair, endowed in perpetuity)로 겸임 재직했다.

보스턴 심포니에서 활동하는 동안 동료들과 함께 프란체스코 현악 4중주(Francesco String Quartet)를 구성하여 제1바이올린 주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는 보스턴 팝스의 솔로리스트로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의 지휘아래 여러 차례 공연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연주로는 앙리 뷰탐스 바이올린 콘체르트(Vieuxtemps Violin Concerto) No.5, 모짜르트 콘체르트(Mozart Concerto No. 4)와 지붕

위의 바이올린(‘Fiddler on the roof’ arranged by Jerry Rosen)을 꼽았다.

또한 뉴잉글랜드 콘서버토리(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와 탕글우드 뮤직센터(Boston University Tanglewood Institute)에서 바이올린과 실내악 교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써왔다.

1947년생인 황보엽씨는 피난 시절 부산 어린이 합창단에 조인하면서 음악에 눈을 떴다고 한다. 수복 후 어렵게 구한 바이올린으로 7세때 레슨을 시작했으며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부, 안용구 선생한테 사사했다. 1967년 서울 음대에 입학한 후 청룡음악상을 수상하면서 위스컨신대(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로 유학했다. 위스컨신대의 애브라함 로프트(Abraham Loft)교수에게 사사하며 Fine Art String Quartet 멤버로 활동하던 중 Young Competition에서 1위 입상을 계기로 밀워키 심포니에 발탁되었다. 이후 밀워키 심포니 부악장을 거쳐 보스턴 심포니에 입단하였다.

그가 반세기를 보스턴 심포니에서 보내게 된 계기에는 재미있



은퇴한 보스턴 심포니 제1바이올리니스트 황보엽씨, 밑은 황보엽씨가 그린 그림과 도자기



는 일화가 있다. 학창시절 그는 클래식 다방을 즐겨 다녔는데 어느 날 놀랄만큼 섬세하고도 절제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 음악을 연주한 오케스트라가 보스턴 심포니임을 알고 난 후 그는 언젠가 꼭 보스턴 심포니의 연주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 목표를 위해 매진해 이

를 이뤘다. 낚시와 정원관리가 취미인 그는 바이올린 이외에도 유화, 도자기에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은 뛰어난 솜씨를 자랑한다. 다재다능한 그가 은퇴 후 또다른 예술 장르에서 펼칠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복차림으로 김치를 선보이고 있는 서영애 한인회장

2022년 매사추세츠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 10월 8일 개최

▶▶1면에 이어서 물한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김치뿐만 아니라 태권도 시범, 고전무용, 그리고 케이팝 노래와 춤등을 선보인다. 불거리 외에 충분한 먹거리도 축제의 분위기를 북돋운다. 페스티벌에서는 불고기, 김치전, 떡볶이, 김밥, 잡채, 만두 등이 준비된다.

이외에 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게임도 준비됐다. 매운 것 먹기, 제기차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게임이 진행되며 한인회는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박터트리기, 영어이름 한글로 써주기 등의 게임도 마련된다.

한인회 정대훈 사무총장은 “한인 동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홍보해서 함께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며 “우리 음식을 알리고 자랑하는 시간이 될 것을 약속한다” 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령탕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upsal Gui (pork belly)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bi (beef short ribs)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한국 입국 후 1일차 코로나검사도 해제 검토

당국, 재유행 안정기...상황 보가며 방역정책 종합 검토 한국, 입국 후 PCR 검사 없애면 모든 조치 해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방역당국은 모든 해외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역정책의 추가 해제나 완화를 검토한다고 20일(한국 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숙영 중앙 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많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 검사 의무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들며 "국내에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시행 중인데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는 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가 의

무다. 뉴질랜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한국은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했으며, 9월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었다.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남아있다. 그러나 실제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 발송 시작

신문 구독 카카오톡 친구 신청 꼭 필요 이미 신청했어도 친구신청 내용 메시지 보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코리아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한 기사 및 신문 발송을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문구독이나 신문 기사를 인터넷으로 빠르게 받아 보기를 원하는 한인들은 보스톤 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하면 된다. 친구신청은 보스톤 코리아 광고 또는 아래의 큐알(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보스톤코리아는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는 선착순 200명 중 무작위로 선정해 25명에게 \$15 짜리 아마존카드를 선사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미 친구를 신청했거나 신규로 친구를 신청한 한인들은 보스톤코리아에 친구신청 내용을 반드시 메시지로 보내야 접수된다. 특히 친구와 공유했다는 점을 메시지로 보내면 당첨 확률이 더 높다.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채널 친구 신청방법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한국, 중국, 베트남계 느끼는 증오공격 위협도 각기 달라

팬데믹 이후 한인 41% “증오 공격 위협 느껴” 스탠퍼드 보건대학 아시안건강연구교육센터 발표 한인들 공격 위협 우려, 백인보다 4.4배 높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팬데믹 이후 미주 한인의 41%가 이전에 비해 증오 공격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스탠퍼드 보건대학 아시안건강연구교육센터(CARE)가 발표했다.

CARE의 공동 소장이자 스탠퍼드 대학의대 교수인 브라이언트 린 박사는 지난 16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학 연구자들이 아시안보건저널(Journal of Asian Health)에 게재한 논문을 인용해 한인들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미국사회에서 느끼는 위협을 상세하게 전했다.

논문은 2020년 18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해 출신 국가별로 반아시안 정서에 따른 신체적 공격 위협에 대해 조사했으며 한인은 총 응답자의 6%인 83명이 참여했다.

83명 중 41%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아시안 정서로 인해 신체적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아시안 중 베트남(58%), 중국계(51%)에 이어 세번째였으며 심지어 백인에 비해 폭행당할 위협을 4.4배 더 많이 느꼈다. 이는 중국계와 같은 수치이며, 베트남계가 5.4배로 가장 많은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린 박사는 “기존의 반아시안 정서에 대한 설문조사는 적은 수의 응

답자를 대상으로 아시아계를 모두 하나로 뭉뚱그려서 조사했다”며 “반면 이번 조사는 많은 수의 아시아계를 출신국가별로 나눠 각각 다른 반응을 세분화해 조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중국, 한국, 일본 동북아시아 3국 및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코로나 19기간 동안 반아시안 정서로 인해 물리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논문은 또 한국, 베트남계 등이 중국인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반증정서로 인해 공격당할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코로나 19기간의 반증정서가 중국계 이민자뿐만 아니라 한인 등 동아시아 이민자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민자의 출신 국가별로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UC샌프란시스코 CARE의 반타 박 박사는 “국립보건연구원(NIH) 지원 연구결과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양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1% 미만”이라며 “CARE는 현재 한인 등 10만명 이상의 응답자를 모아 아시아계 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MA 차량등록시 예약방문제 종료

차량등록시 26일부터 예약없이 RMV 방문가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RMV)은 26일부터 차량등록 관련 사전예약제를 종료하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방문하는 워크인 서비스를 재개한다. 그러나 러너스퍼밋, 운전면허 및 신분증 등 신청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콜린 오길비 차량등록국장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RMV는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팬데믹 동안 RMV는 모든 방문을 사전예약 하도록 했다. 지난 2021년 주 코로나바이러스

서비스상태 해제 시에도 RMV는 팬데믹 당시의 예약제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RMV는 차량등록과 관련해 9월 26일 이후 예약이 사전에 접수돼 있는 경우 여전히 이를 유효하다고 밝혔다. 26일 이후 차량등록 예약 시스템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게 된다.

운전면허, 러너스퍼밋, 신분증 등의 예약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차량국은 운전면허 및 등록증 갱신의 경우 RMV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며 온라인 처리를 권장했다.

hsb@bostonkorea.com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24 ⁹⁹	\$34 ⁹⁹	\$39 ⁹⁹

*전상품 1년 약정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총 13개 Live방송중

연립뉴스TV H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매스 오토인스펙션 스티커 지각갱신 벌칙 강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운전자들은 자동차 인스펙션을 제때 갱신하지 않는 경우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게 된다.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RMV)은 조만간 제때 인스펙션 스티커를 갱신하지 않고 누장을 부리는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신규 정책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새로운 인스펙션 규정에 따르면 12개월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인스펙션 스티커를 제 때 갱신하지 않으면 늦어진 개월 수만큼 스티커의 유효기간이 단축된다.

예를 들어 8월 유효기간 만료인 인스펙션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가 10월에서야 인스펙션을 받은 경우 2개월 늦은 만큼 기간이 단축되어 다음해 8월에 스티커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현재는 인스펙션을 받은 시점에서 12개월간 스티커 유효기간이

보장됐었다.

만약 새해까지 인스펙션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더 강화된다. 모든 운전자는 다음 연도 1월에 모든 인스펙션이 종료되도록 자동 설정된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이 인스펙션 만료일인 운전자가 내년 4월에 인스펙션을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2024년 1월에 인스펙션이 종료된다.

RMV의 콜린 오길비 국장은 “차량 소유주는 최종 인스펙션 날부터 12개월 안에 인스펙션 스티커를 취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운전자가 안전을 우선시해서 인스펙션 날짜를 제대로 지키길 권장한다.” 고 밝혔다.

RMV는 올해 10월 1일부터 통과된 차량의 인스펙션 보고서는 더 이상 출력해서 운전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과되지 못한 경우 프린트



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매사추세츠 인스펙션 스티커를 제 때 갱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RMV는 현재 584,000차량이 인스펙션 기한을 넘긴 채 운행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인스펙션 스티커를 갱신하지 않으면 향후 이로 인해 경찰이 차를 세울 수 있으며 \$40의 벌과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인스펙션 비용은 \$35이다

MA 주민들, 11월 세금 돌려 받는다

1986년 세수잉여 환급법 따라 30억달러 주민에게 환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사상 최대 세수 잉여를 기록한 매사추세츠주는 세수 잉여율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을 경우 이를 돌려주도록 규정한 1986년 법안에 따라 30억달러에 달하는 잉여금을 주민들에게 환급한다.

주정부는 9일 올해 11월 약 30억 달러의 잉여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2년 예상보다 큰 세수 잉여로 초과 수익분 30억달러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돼 기쁘다” 고 밝혔다.

이번 환급금의 지급 대상은 주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주민들로 지난 2021년 세금보고를 오는 10월 17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주정부는 세금 환급을 받는 가구가 3백 6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급금의 금액은 2021년 매사추세츠 주 소득세의 약 13%에 달

한다. 예를 들어 주 소득세금이 \$5,000이었다면 약 \$650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율은 현재 예측치이며 정확한 수치는 10월 말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세금 환급금은 세금 미납자, 차일드서포트 미납자, 등 주정부에 채무가 있는 경우 돌려주지 않고 밀린 세금의 지급으로 충당된다.

자신의 환급금은 주정부 웹사이트(www.mass.gov/62refunds)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환급금은 따로 신청하거나 하지 않아도 11월부터 시작해 우편 또는 은행직접입금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환급금은 지난 1986년도에 통과된 주 세수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세수가 임금상승분보다 더 크게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지난 주 주감사는 주세청이 계산한 초과분 \$2.94 billion을 인증했다.

hsb@bostonkorea.com

신규 정책에 대한 불이익 적용 사례

스티커유효기간	스티커갱신달	새로운스티커유효기간	신규스티커 지속기간
09/2023	11/2023	09/2024	10
09/2023	09/2023	09/2024	12
09/2022	04/2023	01/2024	9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3년만에 다시 돌아온 대면 한국학교, 활기찬 출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22학년 개학 및 개학식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개교 47주년이 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양원미)가 17일 학교 강당에서 개학식을 갖고 2022학년도를 힘차게 시작했다.

3년만에 대면으로 친구들과 만난 학생들은 활기차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워했다. 오랫동안의 대면 수업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은 교실 복도에서 자녀들의 수업모습을 지켜보며 서성였다. 또 다른 학부모들은 교실 유리창을 통해 대면 수업을 받는 자녀의 모습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기초-1과정에 입학한 한 신입생 학부모는 “처음으로 학교라는 공동체에 보내게 되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아이가 어 느새 친구를 사귀고 선생님의 말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했다.” 고 말하고 “쉽지 않은 준비였을텐데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학교 점심시간은 뉴노멀을 실제로 경험케 하는 시간이었다. 김밥과 무지개떡은 일찌감치 동이 나고 미처 구입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음식을 구입해야 했다. 3년만의 개학이라 학부모회도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인기 종목인 떡볶이와 오뎅은 판매되지 않았다.

한편, 2019년 이후 3년만에 강당에서 열린 개학식은 박현아 교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남일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래 간만에 학생들과 학부모님, 선생님들이 강당에

모여 대면으로 개학식을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학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모두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한 후 각 과정 선생님들과 신입생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회 양원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한다. 학부모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모들의 지원을 바란다” 고 말하고 학부모회의 사업 및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학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손주의 할아버지로 학교를 방문한 김은한 전 이사장은 1974년 시작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개교 47년이 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수고하심으로 한국학교가 올곧게 성장해 올 수 있었다.” 고 말한 후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선생님의 수고에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학생들은 고급3과정 백두반 학생들의 선창에 맞춰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며 개학식을 마쳤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기초준비반 및 1-2과정 (리더 김희현 교사), 기초3-4과정 (리더 이성희 교사), 초급1~3과정 (리더 주민정 교사), 중급1~3과정 (리더 김소희 교사), 고급1~3과정 (리더 류민희 교사), 세종1~4과정 & 성인1~2반(리더 박춘아 교사), 작문 교육1~4부(리더 이정설 교사), 문화교육부(리더 양수연 교사) 등 8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일 교장은 앞으로 학부모를



내가 지켜야 할 수칙 선서하는 모습



고려반 수업모습



백제반 수업 모습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들의 재개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학부모 대상 교양강좌들과 서예반, 생활영어반 등으로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10월 29일부터 2~3주간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이어서 11월 중순에는 한글동화구연 & 동시암송대회, 12월 말에는 제 20회 '꿈을 그린 노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글교육과 다양한 문화-역사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한글 교육부은 물론 미술 및 음악교육 교사도 동참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관심있는 한 인 들 은 신 청 링 크 (<https://forms.gle/9iriTXhQfvuD49vy6>), 학교 전화 (508) 523-5389 또는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로 연락할 수 있다. 자세한 학교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를 방문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주택시장 냉각되자 집 안팔고 렌트로 전환 늘어

주택 거래량 감소에도 매물 적어 가격 안떨어져 렌트 전환 돕고 렌트 관리해주는 회사도 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주택 소유주들은 팔리지 않는 집을 시장에 내놓고 가격을 인하하기 보다 렌트로 돌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주택 구입 대신 단독주택 렌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렌트수익을 선택하는 주택 소유주가 많아지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최근 들어 수요감소로 내놓은 주택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가격은 지난 봄과 여름에 비해 점차 하락하고 있다. 많은 구매자들은 모기지 이자율 상승과 주택가격 폭증에 구매를 포기하고 렌트를 선택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락시장에서 가격을 인하하길 꺼려하는 판매자들은 매물로 내놓던 주택을 취소하고 호환인 렌트로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매물은 더욱 줄어들어 구매자가 줄고 거래량이 극도로 적어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회사 하우스캐너리(HouseCanary)에 따르면 매물 렌트 전환의 수가 1년 전에 비해 무려 58%나 상승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철회한 매물의 수는 전체 매물수에 비해 여전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매물 렌트 전환현상은 점차 일반화되면서 존번스부동산컨설팅회사는 1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이를 설문조사로 돌리기도 했다. 지역에 따라 수는 편차가 심했지만 일부 인기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10%의 매물 렌트전환이 일어났고 텍사스에서는 9%가 이를 선택했다.

월담 소재 부동산판매 및 부동산 관리회사를 운영하는 앤서니 라마키아씨는 “렌트비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으면 그냥 렌트로 내놓겠다고 말한다” 고 설명했다.

주택 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집을 팔아 이를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든지 새로운 모기지를 얻는데 사용한다. 최근 부동산 회사들과 부동산 상품들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집을 팔기 전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을 팔지 않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 회사들과 부동산 상품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집을 렌트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투자방법이라고 말해 왔다. 특히 2022년에는 이 같은 주장이 특히 더 설득력을 갖고 있다.

보스톤 소재 녹스 파이낸셜(Knox Financial)의 데이비드 프리드만 대표는 “정체 또는 하락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은 극히 적을 것이다. 집을 팔고 다시 사던 과거와 달리 이를 분리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렌트를 내주는 것” 이라고 밝혔다. 녹스 파이낸셜은 자신의 집을 렌트로 돌리고자 하는 소유주들에게 모기지 상품을 제공하고 집 관리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많은 주택소유주들은 현재 평균 모기지 금리 이하로 이자율을 고정(lockin)한다. 모기지 금리는 고정 상태이지만 렌트비는 점차 오른다는 가정하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렌트를 선택한다.

그러나 렌트 하우스를 소유한다는 것은 위험도 따른다. 세입자들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느닷없는

수리비용을 지출해야 하기도 한다. 또한 렌트시장이 냉각되어 렌트가 안될 수도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많은 렌트 하우스 소유주들은 주택시장이 다시 정상화되면 집을 팔겠다고 하는 반면 일부는 무기한 렌트 하우스를 유지하기도 한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비싼 지역의 경우 사람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렌트전환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일반적이다. 실리콘밸리의 콜드웰뱅크 부동산 라미쉬라오 에이전트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고소득의 직장인이어서 주택 소유주들은 렌트를 하는 위험이 최소화되는 까닭” 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집을 렌트로 전환하는 것은 세일즈텍스

의 부담도 피할 수 있다.

기존 주택 렌트전환은 집값 하락을 막는데 일조하는 대신 렌트 공급의 증가로 렌트비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코어록직에 따르면 미국내 단독주택 렌트 비율은 6월 13.4%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년대비 14%에 비해 약간 하락한 수치다.

렌트 수요는 여전히 증가세에 있다. 존번스부동산컨설팅에 따르면 7월 미 전역에서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렌트로 전환한 구매자의 수는 11%였다. 특히 텍사스의 경우 렌트로 전환 수치는 미국내 최고인 24%였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최미연법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최 미연법 세관 특별수시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최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보스톤 주택 8월 거래 2011년 이래 최저, 주택가격도 하락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그레이터 보스톤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 8월 단독주택 및 콘도 거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며 집값 상승세는 전년 대비 완만한 상승폭으로 전환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8월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825,000로 7월 \$840,000과 비교했을 때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연합(GBAR)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모기지이자율 인상, 집값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가치하락 등으로 인해 올 봄철 이래 수요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거래 감소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1가구 단독주택의 거래는 지난해에 비해 7.1% 하락한 1,454건이었다. 이는 2011년 이래 8월 한달 주택거래수 중 최저치다. 그렇지만 지난 7월 거래량인 1,387건에 비해 4.8% 상승했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지난 8월 994

건이 거래돼 지난해 8월 1,330건에 비해 무려 25.3%가 줄었다. 이는 2010년 8월 879건이 거래된 이후 최저치다. 콘도 거래는 월별로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104건보다 10%가량 하락했다.

GBRA 멜빈 바이에라 회장은 “오래 걸렸지만 주택시장은 정상화되고 있다. 수년간 매물 부족으로 셀러들에게 유리한 시장이었으나 구매자들이 최근 시장상황에서 구매를 포기하거나 구매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집을 좀더 오래 볼 수 있는 기회와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구매 수요 저하로 거래는 줄었으나 매물의 부족으로 가격은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8월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825,000로 전년 동월 대비 5.8% 인상된 상태를 유지했다.

보스톤 주택 중간가격은 2019년 11

월 이래 3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오르고 있는 추세다. 콘도시장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오르는 추세다. 8월 중간가격은 \$652,950로 지난해 8월 \$635,000에 비해 2.8% 인상됐다.

“구매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가격의 상승세는 거의 멈췄지만 매물이 적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대부분의 주택은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asking price)보다 높게 팔렸다.” 고라이베리아 회장은 말했다.

그럼에도 구매자들의 오퍼는 현저하게 줄었다. 과거와 같은 오퍼 전쟁은 거의 사라졌으며 가격조정은 좀더 일반화됐다. 따라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가격은 이미 정점을 찍었고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가격이 내리고 있는 중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이를 반영하듯 월별 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6월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사상 최고인 \$899,950이었으며 7월에는 840,000, 그리고 8월에는 다시 1.8% 떨어진 \$825,000였다. 콘도 중간가격은 지난 4월 사상 최고치인 \$715,000를 찍었으며 8월에는 이보다 8.6% 떨어진 \$652,950였다.

한편 단독주택의 매물은 8월 전년 동월에 비해 1.7% 증가한 1,433건이지만 올해 7월, 월 1,714체에 비해서는 14.9%가 줄었다. 콘도는 여전히 매물이 적었다. 전년동월에 비해 매물이 12.4% 떨어진 1,696채였으며 월별로 지난 7월 2,066채에 비해 17.9%가 하락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교외의 한 주택

EVERSOURCE

nationalgrid

올 겨울 매사추세츠 전기 요금폭탄 60% 이상 폭등

▶▶ 1면에 이어서

공 이후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사태로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내셔널그리드는 전력 공급 발전소 측의 인상분을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전망이다.

내셔널그리드 최고소비자책임자 헬렌 버트는 올 겨울 시즌을 대비한 전력을 두가지 시기에 나눠 구매했다고 밝혔다. 한번은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해 막 가스값이 오르기 시작한 봄철에 구매했으며, 가스값이 폭등한 9월 초에 또 한차례 구매했다.

내셔널그리드는 폭등한 전기요금에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겨울소비자절약이시서티브”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는 저소득 고객들에게 할인과 높은 비용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내셔널그리드는 지난 주 주정부에 난방 천연가스 요금 증가분도 신청했지만 전기료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22-24% 인상을 예고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각 가구는 약 월 \$50정도를 추가로 난방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내셔널그리드는 매사추세츠내 9만 가구 천연가스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요금에 비해 난방가스 요

금이 비교적 소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내셔널그리드가 천연가스 구입을 여러 차례에 나눠서 진행함으로써 가격의 인상 위험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분의 천연가스 분량을 전장이 발생하기 전에 구입해 큰 폭의 상승을 줄일 수 있었다.

현재 내셔널그리드를 통해 전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약 1백30만 가구에 달하며 전력공급을 제3 공급업체가 아닌 내셔널그리드가 조달하는 베이직 플랜을 이용하는 고객은 6만 5천 가구에 달한다.

상당수의 타운과 시정부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신 대량으로 전기를 구입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셔널그리드와 에버소스는 매사추세츠 주내 절대 다수의 가구에 가스와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에버소스는 1월부터 6월까지 겨울시즌 전기요금을 주에 신고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인상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8월 천연가스 공급가의 인상으로 뉴햄프셔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어 이번 겨울에 상당 폭의 인상이 예상된다.

신신마트 당일배송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 순두부 (\$7.99)
- 육개장 (\$9.99)
-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 메주콩, 검정콩 \$29.99/5LB
-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 마른대추 \$29.99/1bag
-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출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터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터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출리 안)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매일 아침마다 따라하는 굿모닝~ 스트레칭 3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채널 (yogasong-hayeon)과 요가스튜디오(yogafullnesslife)를 운영하고 있는 강사 송하연입니다. 여기에 두 아이의 엄마의 타이틀까지 더해 그야말로 더 없이 바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데요, 분주하고 바쁜 하루를 어떻게 하면 활기 차게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제가 아침마다 반복하고 있는 그야말로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스트레칭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제 영어 유튜브채널에서 'Yoga Song Hayeon' 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 중 '13min Morning Yoga' 편을 찾아해보시면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Single Leg Stretch : 둔근(엉덩이), 척추, 코어 강화

1단계 네발기기 자세에서 왼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줍니다.

2단계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시면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끌어당깁니다.

3단계 영상을 참고해 호흡과 함께 다리를 펴고 무릎을 접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TIP! 두 어깨를 귀에서 멀리 보내고 목을 길게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가 지나치게 꺾이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2. Side stretch : 옆구리, 허벅지앞 스트레칭

1단계 첫번째 자세가 끝나면 바로 왼발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2단계 엉덩이를 살짝 바닥으로 내린 상태에서 왼팔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오른팔을 길게 천정으로 뻗어줍니다.

3단계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고 살짝 왼쪽으로 끌어당겨 옆구리와 허벅지의 스트레칭을 한단계 더 깊게 진행합니다.

TIP!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 밑에 담요나 수



건을 받치고 진행해주고 옆구리 스트레칭을 할때는 일정하게 호흡하며 복부도 살짝 당겨주는 거 잊지 마세요!!!

3. Half Split : 허벅지 뒷면 (햄스트링), 무릎뒤와 종아리, 발목

1단계 두번째 자세가 끝나면 바로 왼다리를 뻗어 허벅지 뒷면을 늘려줍니다.

2단계 두손을 바닥에 내려놓거나 한손으로 발목이나 발가락 혹은 발등을 끌어당겨줍니다.

3단계 허리를 최대한 펴 척추를 곧게 유지한 상태에서 가슴을 좀더 허벅지 가까이 보낼 수 있다면 도전합니다.

TIP! 이 자세에서 중심을 잡기 힘들다면 두 손끝에 요가블럭을 사용해 받치거나 한손을 벽에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집에서 홈트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하연쌤과 함께하는 매주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의 장점

1.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2.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인 운동루틴을 생활화하도록 격려

3.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4.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학생 만족도 극대화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유튜브도 못보는 라이브 온라인수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교정도 받고 싶다면?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죽의디자이너'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키워드 'yogafullnesslife'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2022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Experts



SPONSOR CONTENT / REAL ESTATE EXPERTS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jeon.j@compass.com

Jason Jeon brings over a decade of experience and excellent customer service to his real estate work, as well as a commitment to listening closely and providing follow-through. He builds strong relationships with his clients, and maintains those relationships through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He also provides strategic real estate advice, data-driven marketing solutions, and transaction management service to his clients across many markets surrounding Boston. Jeon utilizes a team of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to assist with his clients' buying and selling needs, including stagers, painters, designers, handymen, and inspectors. His business is built on dedication, credibility, consistency, and determination, while also emphasizing his ability to cater and adapt to all of his clients' real estate needs. Jeon is committed to listening to his clients and using his best negotiating skills to ensure the best outcome in every transaction.

BOSTONMAGAZINE.COM 111

Boston Magazine's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선정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2022 보스톤 매거진의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Dedication), 믿음(Trust), 결단력(Determination)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환율, 장중 1,410원도 넘어...1,409.7원 마감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12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만에 장중 1,410원을 돌파하는 등 1,400원 선을 넘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15.5원 오른 달러당 1,409.7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상승한 1,398.0원에 개장한 뒤 바로 1,4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다가 장 마감 직전에는 1,413.5원까지 뛰었다.

환율이 1,41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증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20일(1,412.5원) 이후 최고치다.

달러화는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단행한 금리 인상 여파로 강세를 나타냈다.

연준은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고, 앞으로도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

했다. 연준은 앞으로 남은 두 번(11월·12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빅스텝(0.5%포인트 인상)'과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연말 금리를 4.4%로 전망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1.25% 포인트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품 파워 연준 의장도 FOMC 정례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11을 돌파하면서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



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투기 심리가 확대되는 등 일방적인 쏠림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요한 순간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엄격히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해서 쓸

리고 있다고 생각해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70.70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71.35원)보다 0.65원 내렸다.

ssun@yna.co.kr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매파 조치 연준, '킹달러' 가속...달러가치 20년새 최고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고조도 달러 초강세에 일조 뉴욕증시 이어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약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기준금리 인상 경로를 내놓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달러화가 20년 만의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국 통화 6개와 비교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가 이날 111.63까지 올라 2002년 5월 이후 2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만 16% 이상 상승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관련 데이터를 취합한 1972년 이래 가장 큰 연간 상승 폭이다.

이날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 대비로 1.2% 올랐다. 유로화는 미국 시장에서 장중 0.9810달러까지 하락, 2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달부터 1유로가 1달러를 밑돌며 '1유로=1달러'를 의미하는 '패리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달러화는 일본 엔화 대비로도 강세를 보였다. 장중 달러화 가치가 144.69엔까지 올랐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달러화 강세에 장중 37년 만의 최저치인 파운드당 1.1237달러까지 밀렸다.

이날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가 달러화 강세에 다시 기름을 끼얹었다.

점도표에 따르면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 참가자들이 제시한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올해 말 4.4%, 내년 말 4.6%로, 이전 전망치인 올해 말 3.4%, 내년 말 3.8%보다 대폭 상향 조정됐다.

특히 연말 기준금리가 4.4%까지 오른다는 전망으로 인해 연준이 올해 남은 2차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한번 더 0.75%포인트 인상을 하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인식됐다.

이에 연준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강력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입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령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양상도 달러화 초강세를 한층 부추겼다.

앞서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고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일찌감치 유로화는 매도 공세에 시달렸다.

캐나다 은행 스코티뱅크의 손 오스본 최고 환율 전략가는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가 부상했다고 말했다.

22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도 달러화 초강세가 이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1,400원대를 돌파, 오전 11시 6분 현재 1,408.77원으로 전날보다 12.97원 뛰어들었다.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제롬 파월 연준의장

일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일본 엔화의 가치도 같은 시간 달러화 대비로 144.44엔, 중국 위안화는 7.0922위안을 기록,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아시아 증시도 내리고 있다.

이날 같은 시간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1.49%, 2.10%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증시의 닛케이 평균주가(닛케이225)(-0.92%)와 홍콩 항셱지수(-1.69%)도 내리고 있다.

단,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0.17%)와 선전성분지수(0.43%)는 상승하고 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도 연준의 '슈퍼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자세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7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1.71%), 나스닥지수(-1.79%)가 모

두 하락했다.

향후 달러화 가치가 얼마나 더 오를지는 이견이 있다.

오스본 전략가는 달러화가 이미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달러화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지만 추가 상승을 고려하기가 꺼려진다"며 "하방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만족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호주뉴질랜드(ANZ) 은행의 데이비드 크로이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달러화는 지난 1년간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에 따라 상승했다"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서) 가장 앞서고 있기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 선물도 출렁이면서 향후 미국 증시 약세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VIX 선물의 10월물이 11월물보다 0.28%포인트

트 올라 6월 중순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VIX 선물은 통상 근월물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저렴한데, 반대로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투자자들이 단기 이벤트를 더 우려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2020년 이후 이런 역전 현상이 5번 있었는데, 지난 6월 역전 당시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급락한 바 있다.

pseudojm@yna.co.kr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람 코리아 세라믹 주머니
한국안과학회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 투자이민 제도 재개...중국·인도 부유층 다시 몰린다

투자사기 등 논란에 이민 요건·관리 강화
실업률 높은 지역 투자시 영주권 조기 발급 '패스트트랙'도

(서울=연합뉴스)임상수 기자= 한 때 운영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등 부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 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달러(약 10억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370억달러(약 51조 5천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작년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됐다.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달러(약 21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10만명 가량의 신청자들이 제도 중단으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아 이 제도를 통해 뉴욕의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인 허드슨야드에 투자한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손실로 개발사

가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투자이민자들을 속여 버몬트주의 한 생명공학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에는 뉴욕주 주민 2명이 투자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연결해 주고 영주권과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해서 2천 700만달러(약 376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이던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안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 감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했다.

특히 일자리가 적은 곳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최소 투자 금액을 105만달러(약 14억 6천만원)로 높이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할 경우 80만달러(약 11억 1천만원)로 낮춰주고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등 영주권 획득 조건을 강



미국 여권

화했다.

미 20개주에서 10여개 투자이민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EB5AN'의 창업자인 샘 실버먼은 "마치 사람들이 영화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것과 같다"며 "영화표 숫자가 제한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엄청난 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아무도 줄을 서지 않은 새 상영관 두 개가 막 문을 연 셈"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투자이민 재개는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부유한 중국인들이 중국을 떠나려 하거나 대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층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 앤

드 파트너스' 등에 따르면 올해 자금을 해외로 빼내려는 부유한 중국인들이 약 1만명, 이들의 자금 규모가 480억달러(약 66조 9천억원)에 달하며, 이민을 하려는 인도인 부유층도 8천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에 투자이민 요건이 이전보다 강화됐는데도 그동안 억눌린 투자이민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고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버니 울프스도프 전 협회장은 말했다.

이런 수요에 부응해 투자이민 전문 사이트인 'EB5인베스터스닷컴'이 지난주 베트남에서 3년 만에 연 미국 투자이민 행사에는 이전 행사보다 많은 수백명의 투자자와 변호

사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이민 사업을 다루는 마이애미의 로널드 필드스톤 변호사는 EB-5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의 투자이민 제도와 달리 도시 외 저개발 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도 운영 담당 부처인 미 시민 이민국(USCI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새 법이 "EB-5 프로그램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모든 투자이민 신청을 법과 규제에 부합해 처리하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 02142

Susan Lee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ity.group
Kakao ID : susan1223

THE PRO REALTY GROUP

-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윤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에 대통령실 "외교성과 연결 부적절"

외교참사 언급 자체가 상당히 유감...진위도 판명해봐야

(서울=연합뉴스)이대희 기자=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어떤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0시 무렵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로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무대 위의 공식 말씀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야기한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위도 사실은 판명을 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뒤 회의장을 나오며 한 발언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취해진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은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 인사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가 미 의회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밝힌 감염병 퇴치를 위한 60억 달러 추가 기부 구상과 연결 짓는 등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장에 있던 이 관계자는 '사적 발

언이라고 해도 해당국 의회 인사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할 수도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그 해당국이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글로벌펀드 공여금과 관련해 미 의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 표명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회담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신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jun@yna.co.kr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 후 주변 인사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법원 '교통정리' 요청

(서울=연합뉴스)정래원 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

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유씨는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one@yna.co.kr



재외 한인들의 국적 정체성을 되문게 하는 유승준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SEP. 23rd - SEP. 29th, 202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AUTUMN IN A NUTSHELL, DRIED PERSIMMON BROWNIES

Welcome the new season with these sugary-sweet fudgy brownies with a surprise center! With wonderfully chewy dried persimmons, and the crunch of a walnut in your every bite, it's a chocolaty treat you'll definitely be fallin' for.

달콤한 초콜릿과 건강만점 호두, 쫄득한 곱감으로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곱감 브라우니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섀골드 키위 BOX \$26.99	Seafood Mushroom 씨푸드버섯 5.3 OZ/PKG \$2.49	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LB \$1.99	GUAN'S Ginkgo Nut 구안스 은행 진공팩 3.5 OZ/PKG \$1.49	White Cabbage 화이트 캐비지 LB \$0.99
DAEWONGSAN Aged Black Garlic 대왕산 흑마늘 7.05 OZ/PKG \$8.99	Pickled Cucumber & Eggplant 오이 & 가지 절임 15.98 OZ/PKG \$3.99	Guava 구아바 LB \$3.99	Kabocha 단호박 LB \$1.49	SOONYEOWON Tofu 수녀원 콩두부 SOFT/FIRM/SILKEN 14-16 OZ/PKG \$1.4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Beef Eye Round 생홍두깨살 (장조림용) CHUNK/LB \$8.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5.99	Frozen Pork CT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불고기 SLICED/LB \$5.99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사태 LB \$3.99	Frozen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냉동 알찬순대 1.5 LB/PKG \$9.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 SIZE/LB \$6.99	SUHYOP Frozen Oyster 수협 굴 8 OZ \$4.99
Headless Tiger Shrimp 머리없는 타이거새우 21-25 SIZE/LB \$10.99	TONGTONGBAY Frozen Squid, Small Octopus and Octopus Mix 통통배 오징어 1 LB/PKG \$12.99
OHGWANG Dried Squid Stick Snack 오광 철파구이 오징어스틱 4 OZ/PKG \$8.99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

SMART CARD MEMBER ONLY

OTTOG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MILD/SPICY 4.23 OZ X 18 EA/BOX \$14.99	KWANGCHEON Green Tea Seaweed / Seasoned Laver 광천 녹차 김/청파래 김 선물세트 0.71 OZ X 10 EA/BOX \$12.99
CHUNG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오후드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6.6 LB \$14.99	DONGSUH Maxim Instant Coffee Mix 동서 맥심 커피믹스 ORIGINAL/MOCHA GOLD 100 STICKS/PKG \$12.99

KYONG GI MI Medium Grain White Rice 경기미 40 LB \$34.99	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7.4 OZ X 12 EA/BOX \$12.99	SAMYANG Buldak Hot Chicken Ramen 삼양 불닭볶음면 4.94 OZ X 5 EA/PKG \$4.99	CHUNG 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7.05 OZ \$6.99	KIKKIMAN Less Sodium Soy Sauce 기꼬만 저염 간장 64 FL OZ \$9.99
SAMLIP Frozen Udon 삼립 냉동 우동 2.76 LB \$3.99	FOODCELL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드셀 감자전분면 1.5 LB \$2.99	GREENLAND Rice Paper 그린랜드 라이스페이퍼 22 CM/12 OZ \$2.99	SEMPIO Canned Mackerel Pike 샘표 꽁치 통조림 14.1 OZ \$2.99	CROWN Couque D'asse 크라운 쿠키다스 10.19 OZ \$3.99
HAIOREUM Peeled Roasted Chestnuts 해오름 껍질간 맛밤 3.52 OZ \$7 FOR	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6.8 FL OZ X 6 EA/PKG \$6.99	HELLO Wok Pan 헬로! wok 팬 28/30/32 CM \$9.99-11.99	SOFY Organic Pads 소피 오가닉 패드 Regular 20 PCS Overnight 10 PCS Pantyliner 40 PCS \$4.99 \$5.99 EA	DW Nurungji Pan 두우 사각 누룽지팬 197 X 170 MM - \$30.99 \$23.99 EA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1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President
won@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준한
617.586.9192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jha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Lexington Branch Manager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Lexington Branch Manager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크리스 최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마샤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choi@gmail.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임현미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wang1@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u2022@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obox@gmail.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Samantha Cordon
857.333.2088
samanthajcordon@gmail.com



Lili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9796
alex@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alex@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WWW.BOSTONPRG.COM
Licensed in MA, RI, CT, and NY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UNBEATABLE PRICE

09/22 - 09/29, 2022

성원에 힘입어 한번 더!
☆ **FROZEN PORK**
☆ **SINGLE RIB BELLY**

올해 마지막! 딱 일주일만!

냉동 삼겹살

LAST, BEST SALE OF THE YEAR!

\$4.49

FAMILY PACK/LB



☆ **FROZEN ROASTED EEL**
☆ **(UNAGI KABAYAKI)**

힘이 불끈! 최저가 대박 세일!

우나기

NUTRITIONAL AND RICH IN TASTE, UNAGI!

6 OZ/PKG
\$7.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융자들 도와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 캐쉬아웃
개인 소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번호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
ITIN 번호만 필요한 프로그램
바로 연락 주세요.

“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거의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다른 회사에서 진행한지 5개월이 넘었어도 도저히 끝이
안보였거든요 그런데 열흘도 안되서 모든게 거의 결정되고 시작한지
한달여만에 이사했으니 정말 빠른진행과 더불어 너무 친절하고
정확하게 도와주신 Kellie Kim Thielen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다시 드립니다!

- Hun Pyo C.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CT,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CT,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CT 17213, FL Lender/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는 한국연립은행의
정부보증 수속을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연립은행
Korea First Bank

오후 5: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정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Church in Boston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 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교사 / 학생 모집
[교사 모집]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2022-2023 등록 안내]
등록금 330불+등록비 20불
(한 자녀 330불, 두 자녀 640불, 세 자녀 950불)
*8월 14일까지 등록시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문의: 교장 전화: 617-610-2743
이메일: BostonCatholicKoreanSchool@gmail.com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ing,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The KCSB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주최

ARIRANG

Together!

한국 가곡의 밤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나유선
소프라노 & 기획

김유중
테너

이지영
피아니스트

KATHY EOW
공연가

유수례
화가

ANTHONY DE RITIS
작곡가

티켓: KCSBOSTON.ORG

일반 \$10 학생 무료

10월 2일 (일) 저녁 7시반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20 TALBOT ST. MEDFORD, MA

COVID 백신 카드 필요 / 주차 시간당 \$2.50



The Boston Foundation tBf

Mass Cultural Council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03) 주식투자 기본

물가상승, 이자율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 불균형, 등으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 일반 투자자는 주식시장 변화에 따라 마음 역시 불안해진다. 이러한 시점에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투자 기본이 있다. 투자 기본은 3,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 투자 기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본다.

성공하는 투자는 자산분배를 먼저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한다. 필자가 주식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13년(2009-2021) 평균 수익률이 15% 이상이었다고 언급하면 이 종목(S&P 500 Index)에만 투자하라는 뜻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수익률은 매우 높았지만, 2020년 3월에 34%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주식과 채권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주식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오르고 내림의 폭(Volatility)이 크다.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받으므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움직이는 폭이 주식과 비교해서 상당히 적다.

주식 보유가 적어지고 채권 보유가 많아질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성도 그만큼 적어진다. 이에 따라서 수익률도 낮아지지만, 투자 위험성이 적어지는 비율만큼 똑같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학설이 모던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이다. 이 논문으로 시카고 대학의 마코위츠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자산분배 다음에는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주식에는 큰 회사, 중간 회사, 작은 회사, 외국 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채권 투자 역시 정부 채권과 회사 채권으로 구분되며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만기일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투자로 구별된다.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다. 미래에 어떠한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올해의 톱 수익률 종목이 내년에 최악의 종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최악의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 효자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자산분배와 분산투자 이후 해야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재조정(Retalance)이다.

기본적인 예로 주식에 50% 그리고 채권에 50%가 투자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비율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주식이 55%로 증가하고 채권이 45%로 감소하면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5% 사들여 원래 형성했던 주식 50%와 채권 50%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마음의 감정(Emotion) 없이 결정된다. 재조정은 모든 투자자가 원하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이성적인 결정이다.

성공하는 주식투자의 기본은 간단하다.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상 몸무게를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먹는 것을 조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의학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이어트(Diet)를 할 수 있지만,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는 어떠한 환자가 밀어 단쳐도 차분하게 대처한다. 오랜 기간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한다. 큰 변화에는 이성적인 마음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모르는 것을 모른 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실수로 이어진다. 은퇴 후 실수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 어느 2년간 나의 돈이 투자되어 있으면 원금보다 높아질 확률이 80%가 되고 6년간 투자되어 있으면 90%가 되고 16년간 투자되어 있으면 원금보다 적어질 확률은 0%가 된다. 다시 요약하면 주식시장에 장기간 투자할수록 원금보다 적어질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같은 기간 주식시장이 창출하는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참고로 오랜 주식시장(미국 500대 기업이 모인 종목)의 연평균은 10%이다.

주식 투자 위험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산분배와 분산투자로 형성된 포트폴리오가 절대 필요하다. 투자자는 일시적인 시장 하락을 감수하며 장기적인 마음과 함께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기에 기업이 발전하고 주식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6세 풍월주風月主 진공眞功(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인이 되었다. 둘째 딸은 신광信光이며 문무왕이 된 김법민이 태자 시절 그의 첩이 되었다. 셋째 딸은 작광作光인데 보로전군寶路殿君의 후처가 되었다. 보로는 진평왕의 아들로 정희(김유신의 동생)의 딸 흠신을 첫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흠신은 두 딸을 낳은 뒤 풍월주 진공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를 감지한 진공은 흠신이 병이 있다고 소문을 내어 그들을 이혼하게 하였고, 결국 흠신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넷째 딸은 영광光인데 김흠순(김유신의 동생)의 셋째 아들인 반굴盤屈과 결혼하여 영윤永胤을 낳았다. 삼국사기나 다른 사서에는 영윤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화랑세기에는 김유신의 넷째 딸 영광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김유신의 장남 삼광이 지소의 아들이 아니고 첫 부인 영모의 아들임을 고증해 보고자 한다.

삼국사기에, “천존天存의 아들 한림漢林과 유신庾信의 아들 삼광三光은 모두 나미奈麻의 관등으로 당나라에 들어가 숙위宿衛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권6, 신라본기, 문무왕6년 여름4월).

문무왕6년은 서기 666년이다. 김유신과 지소는 655년12월에 결혼하였다(삼국사기). 삼광이 그들의 아들이라면 656~7년생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나미는 당시 신라 17관등 중 11등급이었다. 즉, 10살 정도의 소년이 나미로 당나라에 들어가 황제를 숙위했다는 것이다. 과연 가능했을까?

참고로 김천존(? ~ 679)은 김유신과 함께 백제 도살성을 공격하였고(649년, 진덕여왕3년), 또한 660년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의 계백을 격파하는데도 참전하였다. 문무왕 19년(679년)에는 중시의 벼슬도 하였다.

같은 삼국사기(문무왕8년, 668년6월12일)의 또 다른 기록,

“... 유인제가 황제의 칙명을 받들고 숙위宿衛하던 사찬 김삼광과 함께 당향진에 도착했다. 왕이 각간 김인문에게 성대한 예식으로 맞게했다”

유인제는 당나라 장수이고, 김인문은 문무왕의 동생이다. 그리고 사찬은 8등급의 관위이다. 열두세살 정도의 소년이 사찬의 관위로 당나라 황제의 칙사를 수행하여 귀국했다는 기록이다. 과연 가능했을까?

뿐만 아니라 삼광에 관한 기록은 신문왕대에도 나오는데(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3년, 봄 2월, 683년), “(신문왕이) 순지順知를 중시로 삼았다. 일갈찬 김흠운金欐運의 작은 딸을 맞아들여 부인으로 삼았다. 먼저 이찬 문영文穎과 파진찬 삼광三光을 보내 기일을 정하고, 대야찬 지상智常을 보내 납채를 하였는데... 하략”

일갈찬은 7등급이고, 이찬은 2등급이며, 파진찬은 4등급이고, 대야찬은 5등급이다. 앞서 인용한 삼국사기의 기록도 모순이 있지만 123세의 소년이 8등급이었다가 145년 뒤에 네 단계를 승진해서 26,7세의 젊은이가 진골만이 될 수 있는 파진찬이 되어 있다. 과연 가능했

을까?(역사 속에는 젊은 나이에 벼락 출세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세조 재위시 남이는 26세에 공조판서를 거쳐 27세에 병조판서가 되기도 했다. 정조 때 중국영은 28세에 도승지가 되었다. 심지어 현대에도 30대에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원용덕, 백선엽, 정일권, 장도영 등 다수가 있다.)

삼국사기 나오는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삼광은 지소가 낳은 아들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리고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김유신의 네 딸은 모두 삼광과 함께 광자 돌림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삼광은 지소가 아닌 영모가 낳은 아들로 막내였을 가능성도 크다. 그는 문무왕 재위(661~681년) 시에는 나미(11등급), 사찬(8등급)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신문왕 재위(681~692년) 시에는 파진찬(4등급)으로 모습을 보인다. 김유신과 영모가 결혼한 해가 612년이니, 만일 삼광이 그들의 맏아들로 태어났다면 50대 중반에 나미(11등급)였고, 또한 70대에 고작 파진찬(4등급)의 관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유신은 612년 영모와 결혼하여 딸 진광, 신광, 직광, 영광과 아들 삼광을 낳았고, 환갑을 맞은 해인 655년에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셋째 딸 지소를 맞이하여 원술, 원정, 장이, 원망 등 아들 넷을 낳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조선왕조실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UCKOO

가을이 오면

쿠쿠하세요

기간 | 08.30.2022 - 09.28.2022 조건 | 기간 내 주문 & 9월 내 설치

ALL

1. 일시불 구매 시 **10%** 할인!
2. 비데 또는 버블 클렌저 추가 구매 시 **50%** 할인!

렌탈/구매
수량별 혜택

혜택 하나

3대 렌탈/구매 시
쿠쿠 IH 압력밥솥 증정
*프리미엄 제품 1대 포함 필수



\$590
상당

CRP-JHSR0609F | 6인용

혜택 둘

2대 렌탈/구매 시
쿠쿠 압력밥솥 증정



\$260
상당

CRP-RT0509FW | 5인용

혜택 셋

1대 렌탈/구매 시
쿠쿠 제빵기 증정



\$150
상당

CBM-AA6101S

안마의자
런칭 혜택

혜택 넷

4D 안마의자 렌탈/구매 시
쿠쿠 LED
마스크 증정



\$800
상당

LUD-AM106W

혜택 다섯

3D 안마의자 렌탈/구매 시
쿠쿠 초강력
공기청정기 증정



\$375
상당

CAC-K1910FW

혜택 여섯

안마의자 렌탈 시
다운페이
\$500 면제



\$1,000
할인

CMS-G1013D 안마의자 | CMS-H1014D 안마의자

\$2,000
할인

Cuckoo Boston 617-879-2725

일부 혜택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에 문의하세요.

동원, 개구리, 등원, 번영, 등원 설치처 필수
사은품 조기 소진 시 동일 가격대 다른 사은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

사은품 관련 댓글과 문의등의 추가 구매와 5%는 유상 제공
구매 후 7일 이내 또는 반품 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프리미엄 제품 : 정수기 SM-TN-TVFM/KNACWF/CR 크넬,
공기청정기 UV-모형 LED 마스크 프리미엄 모형,
Nero 프리미엄 커피머신
프로모션 대상 제외 제품 : 세탁기

쿠쿠 제품 구입 및 서비스 문의 | 888.700.0425 쿠쿠 공식 웹사이트 cuckoorental.com | cuckooameric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소한 기쁨속에서

민유선

우리집 거실 탁자위에는 조그만 화분 하나가 놓여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는 비교적 꽃나 무가 많아 일년내내 여러가지 꽃이 피어나기에 평소엔 집안까지 화분을 놓지 않고 살고 있는데 지금처럼 탁자에 예쁜 꽃 화분이 놓여 있음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찐돌이"라는 별명을 들 정도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구입하지 않음은 물론, 모든 계산에 정확한 남편이 꽃 화분을 사오는 일은 정말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꽃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하기 마련이지요. 웬일이냐고 묻는 저에게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시장보기는 여성인 아내의 몫이었지만, 세상이 변한 요즘에는 남편들도 육아나 요리, 시장보기 등 가사노동을 남녀 구별없이 하는 세대가 되었지요.

어느날, 남편이 혼자 그로서리에 나가 몇 가지 물품을 사고 계산하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서 어린아이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둘러보니 피부색이 조금 다른 여인이 물건이 가득 담긴 cart를 잡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곁에서 칭얼거리는 것

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그 여인의 처한 상황이 안보여 남편은 그들을 앞으로 세우고 자신은 뒤에 가서 섰다고 합니다.

다시 남편의 차례가 되어 계산을 하는데 돈이 남기에 물으니 앞서 간 여인이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뒤에 오는 "동양 어른"에게 보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말한 "동양 어른"은 물론 저의 남편을 지칭하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애초에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기에 민망스러웠지만, 얼마 안되는 그 공짜돈(?)으로 예정에 없으나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온 것이라는 사연을 듣고저는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시아버님의 용모와 성품을 빼어 닮은 남편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절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미국에 와서도 우리 세대에 한국에서 배운 영어보다 훨씬 능숙하게 미국인들과 소통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닌가,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분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가 퇴임후에 교향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듯이,

남편도 한때 작은 교회에서 기초 복음반 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때때로 반원들에게 당신의 신앙 간증을 들려준다고 하였는데, 남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당신 남편의 간증에 감동을 받았다."고 인사를 해 온 적도 여러번 있었답니다.

심지어는 쇼핑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나에게 "너의 남편은 nice man"이라고 하는 등 남편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보병부대의 사령관인 별자리 장군과도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길거리에서 빈병이나 강통을 모아 생활하는 "강통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과도 호숫가를 정답게 거니는 등, 직업에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는 성품의 소유자로서, 어느 단체 모임에서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주최측을 찾아가 인사하기를 잊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은색 바탕에는 아무리 고운 색을 섞어도 검은색이 되듯이 성품이 부정적인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친절한 인사말도 그 진의를 왜곡하게 마련인가? 때때로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저희 부부를 곤혹스럽게 한 것이 있었기에, 비록 친절할 인사를 하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조심하는 터에, 그날 남편과 그 낯선 아이들 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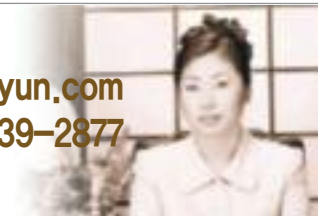
마사이에 있었던 친절은 "코로나 19" 이후에 "인종차별적 문지마 폭행"이 더운 빈번해진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비합리적인 인간애인가?

아직도 밖에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험한 세상이지만, 수년전부터 한국의 여러 가수들이 즐겨 부른 "그대와 나"라는 노래말을 패러디하여 "이 나이 되어서 예쁜 꽃 사다준 그대 그리고 나"를 흥얼거리며 탁자위에 놓인 꽃을 바라보는 나는 소소한(소박하나 소중한) 기쁨 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요즘입니다.

9월 25일 - 10월 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꼼꼼히 확인해야</p> <p>● 운수: 위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힘들더라도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극복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금전: 손해를 보거나 후회하게 되는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더는 미련을 갖지 마세요.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8, 1일 길일, 26, 29일 주의.</p>	<p>소띠 만족할만한 결과가</p> <p>● 운수: 여러 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도 이제는 훌훌 털어내고 벗어납니다. ● 금전: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배웠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소중한 인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본 순간 느낌으로 알 수 있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범띠 물이 고여 있으면</p> <p>●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변화 주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나가야 합니다. ● 금전: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돈을 들고도는 것이니 붙잡고 있으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애정: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결론을 내려놓고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6, 30일 길일, 28, 1일 주의.</p>
<p>토끼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p> <p>● 운수: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수입은 무난한 편입니다. 금쪽같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판단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의심만 하고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하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27, 1일 길일, 26, 29일 주의.</p>	<p>용띠 신나서 일하게</p> <p>● 운수: 운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연결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현실은 힘들어도 잘 지나가게 됩니다. ● 금전: 나갔던 돈이나 잃어버렸던 돈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도 생깁니다. ● 애정: 더는 자신의 감정을 가슴속에 감춰두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면 잘 전해질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8, 29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뱀띠 돈이 들어오게 되는</p> <p>● 운수: 너무 완벽함을 도모하다 보면 일의 진행이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넘어가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이니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 애정: 주위를 잘 살펴주세요. 가까이에서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6, 29일 길일, 28, 1일 주의.</p>
<p>말띠 막상 코앞에 닥치면</p> <p>● 운수: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처음은 되지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해놓고 또 막상 코앞에 닥치면 이런저런 이유로 따지고 가리게 됩니다. ● 금전: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자신의 손안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애정: 힘들다고 하면서도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9일 주의.</p>	<p>양띠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p> <p>● 운수: 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극복해나가야 차츰 발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전: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처럼 됩니다. 과거에 배웠거나 쌓았던 덕으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1일 길일, 28, 30일 주의.</p>	<p>원숭이띠 새록새록 피어나는</p> <p>● 운수: 다시없을 인생의 기회라 여길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애정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9, 30일 길일, 28, 1일 주의.</p>
<p>닭띠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p> <p>● 운수: 신체 에너지가 상승하니 의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특히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전: 부동산 매매가 되거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 애정: 모처럼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8일 길일, 26, 30일 주의.</p>	<p>개띠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p> <p>● 운수: 항상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감정에 빠져서 다가오는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 금전: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미룰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애정: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별 애기도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 처지에서 화나게 하는 말을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8일 길일, 27, 29일 주의.</p>	<p>돼지띠 내실 있게 해야</p> <p>● 운수: 내 자식이라도 나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기억하고 자신처럼 생각하고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먼저 내실 있게 해야 할 때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는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 애정: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감정싸움에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1일 길일, 25, 28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2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쉐프 및 키친 스태프
Tel. 617-308-4742

4/15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2/11
캐슈어 및 가발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베벌리 타운 피자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LOVE THE LORD, LOVE THE LOST

WELCOME

보스턴 주안예교회
IN CHRIST CHURCH OF BOSTON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 2 PM
금요기도회 (FRIDAY PRAYER) : 9 PM (zoom)
사벽기도회 (MORNING PRAYER): 5:30AM (zoom)



전성우 목사 (Rev. Peter Jun) 978-835-6653
70 Colchester St. Brookline, MA 02446
@ Longwood T Station (D-Line)

'블라인드', "배우들 감정 연기에 초점 맞춘 장르물"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을 다루는 미스터리 스릴러 '블라인드'가 16일 시청자들을 찾는다.

연출을 맡은 신용휘 감독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tvN 금토드라마 '블라인드' 제작발표회에서 "멋있거나 그럴싸하게 살인을 묘사하기보다 배우들의 감정과 진심을 더욱 잘 담아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드라마 '터널', '보이스4' 등 어두운 분위기의 장르물을 만들었던 신 감독은 "아마 현존하는 연출가 중에 제가 (작품 속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장르물이 좋아서 장르물만 해 온 건 아닌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고 잘하게 된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배우들의 감정 연기가 진심이었던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 그분들의 진심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눈빛과 말투 등을 디테일하게 잡아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블라인드'는 살인사건 현장마다 독특한 흔적을 남기는 일명 '조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이 하나둘씩 살해당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혈 형사 류성준(옥택연 분)과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완벽주의 판사 류성훈(하석진) 형제



, 그리고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사회복지사 조은기(정은지 분)가 범인을 추적한다.

옥택연은 "성격이 정반대인 류성준과 류성훈 형제는 물과 기름을 섞은 듯한 느낌"이라며 "형제 관계를 융화시키는 역할을 정은지씨가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 형사 캐릭터는 사건의 실마리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류성준은 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의 소용돌이 안에 있다"고 차별점을 꼽았다.

하석진은 "이런 작품은 지금 안 하면 언제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결심했다"며 "호불호가 갈릴 만큼 장르물의 특색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정은지는 "정의에 대해 고민해 본 모든 어른 분들이 한번쯤은 봐야 하는 작품"이라며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정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10시 40분 첫 방송.

coup@yna.co.kr

블랙핑크 '셋 다운' 뮤비 5일 만에 1억뷰 달성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셋 다운'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공개 5일 만에 1억건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후 4시 49분에 1억뷰를 넘겼다. 지난 16일 오후 1시 공개 이후 5일 3시간 만이다.

블랙핑크는 이로써 이 영상을 포함해 총 34편에 달하는 역대 유튜브 영상을 보유하고 왔

다. '셋 다운'은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를 샘플링한 힙합곡으로 뮤직비디오 제작에는 YG엔터테인먼트 자체 최고 제작비가 투입됐다.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신보 발매 이후 160만명 증가해 8천160만명에 이른다. '셋 다운'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4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5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뉴욕 <로고스 선교관> '상담실 개원' 감사예배를 드리며...

지난 9월 18일(일) 뉴욕 노던 블러바드 소재 <로고스 선교관> '상담실 개원' 감사예배가 있었다. 뉴욕로고스교회(담임: 임성식 목사)의 성도들과 뉴욕 각계의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생들 모두 약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뉴욕 플러싱 <로고스 선교관>에는 선교 카페 '에이레네(평강)'가 이미 있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을 닫고 있었던 터였다. 이번 '상담실(담담: 신영 전도사)' 오픈을 계기로 카페 '에이레네'도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상담실과 카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다.

우리네 삶에는 우연이란 없다. '로고스 상담실'이 오픈되는 과정에서의 만남도 그랬다. 그 어떤 결과보다는 공부하며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의 신분이었다. 열심보다는 시간이 허락될 때 언제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늘 하는 편이다. 그래서일까.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우연인 듯 싶으나 나 자신이 느끼기에 단 한번도 우연인 적 없었다. 늘 알게 모르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뉴욕에서의 신학대학원 공부와 상담사역(상담실 오픈)이 그저 우연이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뉴욕의 삶은 보스턴의 삶과는 많이 달랐다. 보스턴의 이민자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면, 뉴욕은 현실과 맞닥뜨리며 불안정한 삶의 바쁜이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 21살 처음 미국에 도착한 곳이 뉴욕이었다. 뉴욕은 내게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슴 설레는 곳이다. 짝꿍과 죽도록 연애를 했던 곳이기도 하며 나의 제일 젊은 날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이기도 하다. 과란 하늘만큼이나 부풀었던 나의 꿈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하다.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어릴 적 꿈을 다시 꺼내어 보면서 내가 뉴욕 하늘에 와 있다.

내 인생 중반의 삶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남편을 2021년 3월에 하늘나라에 보내놓고 한국 방문 티켓을 3번이나 캔슬하길 반복했다. 그것은 어쩌면 아직도 내 가슴에 깊이 남

은 상처이며 풀어야 할 아픔인지도 모른다. 한국에 도착해서 부모, 형제 가족들 보기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다. 애써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 왈칵 울음이라도 터뜨릴까 두려운 마음인 것이다. 9월에 가려던 한국행 티켓도 애써 캔슬하고 말았다.

내 아픔과 슬픔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대하며 진정한 치유를 얻는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매일 경험하고 있다.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일에 살아가는 일에 익숙한 이들도 있다. 웃음이 사라진 삶 무표정이 되어버린 삶 그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일 있는가. 그렇듯 그 우울한 마음으로 삶마저 포기하고 싶은 이들이 정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상관이 있다.

어느 곳이나 빛과 그림자는 공존한다. 다만 내 몸과 마음을 빛을 향해 얼마만큼 내어놓는가에 따라 보여지는 현상이 다를

뿐이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 한다. 어지러운 세상 혼돈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한다. 내게 있는 빛의 부피와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게 있는 소금의 양은 또 얼마나 될까.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떠밀려 그저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아무런 때? 어차피 주어진 '나의 길'이라면 바른 방향과 옳은 가치를 챙기리라.

뉴욕 <로고스 선교관> '상담실 개원' 감사예배를 드리며 눈물이 고였다. 이곳의 문을 여닫고 드나드는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의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와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 기쁨의 마음 행복의 마음을 담아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다. 꼭 그렇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요즘 또 라디오 방송국(FM 87.7)에서 두 목사님과 함께 패널로 활동을 시작했다. 모두가 감사하다. 내가 무엇을 작은 것 단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신앙은 관념이 아닌 삶을 깨닫는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가을 꽃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신문기사는 이어진다. 나무와 꽃이름을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모른다. 불평을 듣던 젊은이의 항변이다. '꽃과 나무이름은 몰라도 커피 이름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모카, 바닐라 라떼는 압니다.' 연세지긋한 분들이야 그저 다방커피만 기억 할 수도 있겠다. 봉지 커피던가.

나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나무와 꽃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책꽃이 식물도감엔 한국품종인 나무와 풀과 꽃만 있다고 애써 변명한다. 어중간한 중늙은이이며 어설픈 판대인가.

풀꽃도 있다. 계절과 상관없이 어디서건 어렵지 않게 눈에 띄인다. 노란색도 있을 것이며, 분홍에, 흰색꽃도 있을 수있다. 그러나 그 꽃들을 이름없는 무명화無名花라 하진

않는다. 내가 모를 뿐이다. 가을꽃 중엔 국화도 있으며 코스모스도 있다. 용해원 시인의 코스모스길이다.

코스모스 길을 따라
너무도 좋은 그대가
달려올 것만 같아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용해원, 코스모스길 중에서)

보스톤 가을꽃은 어떻게 있던가. 동네 어저집 마당엔 무궁화가 피었다. 단풍도 이젠 굵게 물들기 시작했다. 나무는 Maple 인가?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 2:9)

한국에서 공부했던 이탈리아 교수의 술회이다. '수다스러운 하숙집 아줌마가 훌륭한 한국어 선생님이였다. 매일 이런저런 주제로 대화하면서 듣고 말하는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 그가 펼쳐 보이는 한국어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요새 한국말을 제법 할 줄 아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말은 곧잘 한다만, 글쓰기는 다르다. 또한 글쓰기에 앞서 글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먼저 일수도 있겠다. 어휘력이라 해야 하나.

어휘력이라 하기에 떠오르는 신문기사가 있다. 심심甚深한 사과謝過를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라 잘못 알아들었다. 또한 금일今日마감을 금요일에 마감으로, 고지식하다를 고지식高知識이라 오해한다는 거다. 사흘(3일)을 사일인 4일로 우겼다던가. 이런걸 고지식(성질이 외곱으로 곧아 융통성이 없다) 하다 해야 하나. 읽히는 대로 읽고 이해하려 했으니 말이다. 하긴 문해력이란 말도 그러하고 어휘력이란 단어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무릎통증 대명사, '퇴행성관절염' 원인과 치료법은?



자료제공 : 메이치클러스 양지병원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정형외과 이 용준과장의 도움을 받아 고통스러운 무릎 통증의 대명사인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 손상으로 관절 통증과 운동장애를 보이는 관절질환이다. 주로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혹은 오랫동안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발생한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또는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악화된다. 간혹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자기 힘들 수도 있다.

관절통으로 다리를 쓰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져 다리가 가늘어지고 관절통이 심해질 수 있다. 다만, 전신 증상이 없다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차이점이다.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종창(부종), 관절 주위 압통이 나타나며

관절 연골 소실과 변성에 의한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 관절 운동 시 뻣뻣함과 마찰음이 느껴질 수 있다.

이 같은 증상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간헐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치료가 힘들다고 여겨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관절염은 노화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근래에는 중장년층 뿐 아니라 2030 젊은 층에서도 관련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릎은 연골손상이 쉽게 발생하는데 축구, 농구, 고난이도 근력운동 등 과격한 운동을 하다 손상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격한 운동으로 무리한 관절 작용이 반복된다면 젊은 층에서도 발병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병의 진행 정도와 나이, 체력과 직업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물리/작업치료, 규칙적 운동과 체중조절, 약물

치료 등을 적절하게 병행하면 증상을 완화하고 관절염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수술적 치료 일종인 ‘인공관절치환술’은 관절염 진행으로 관절 손상, ‘O’ 자형 다리 변형,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손상된 관절면 부위를 제거한 후, 인공관절로 대체한다.

‘인공관절치환술’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변형된 다리 모양을 원래대로 교정해 무릎 관절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치환물과 수술기법 발전으로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법이다.

수술 후 관리는 정상 체중 유지가 관절에 부하를 줄여 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무리한 동작의 반복과 좋지 않은 자세는 주의해야 한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에 좋지 않지만 적당하게 조절한다면 근육 강화와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시켜 주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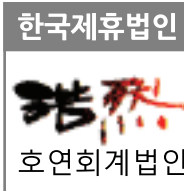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4-6주 동안 수술 부위에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걷거나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관절을 펴주는 운동을 게을리하면 관절 운동 범위가 좁아져 회복 후에 보행을 할 때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등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퇴행성 관절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한 불안한 마음,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휴람 성형이벤트 지금 이용해보세요!
상담 · 예약 ·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수술 ·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보호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HURAM
성형이벤트
아름다움을 만드는 곳

<p>상안검 or 눈썹하거상술</p> <p>187만원 154만원~</p>	<p>하안검 + 지방재배치</p> <p>187만원 154만원~</p>	<p>안면거상술 +목거상</p> <p>880만원 660만원~</p>			
<p>이마 거상술</p> <p>495만원 330만원~</p>	<p>코 성형</p> <p>363만원 264만원~</p>	<p>지방이식 +PRP</p> <p>330만원 220만원~</p>	<p>가슴성형</p> <p>660만원 550만원~</p>	<p>지방흡입</p> <p>220만원 ~</p>	<p>이물질 제거</p> <p>110만원 ~</p>



“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디테일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체크하는 디테일
풍부한 경험으로 올바른 개선책을 찾아내는 디테일
수준 높은 세포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디테일
안정적인 마취를 통해 더 좋은 수술결과를 이끌어내는 디테일 ”

휴람 네트워크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반재성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바노바기성형외과		최은우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유성원외과		노성훈 대표원장 카톨릭의과대학 졸업 노성호성형외과		김용규 대표원장 연세대 석/박사 졸업 YK성형외과
	김태현 대표원장 외과대학 졸업 라보성형외과		최연혁 대표원장 경희대 의과대학 졸업 드림라인클리닉		정경민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시너지성형외과		박재현 대표원장 외과대학 졸업 리본리네디올그룹



김수남
하의의료사업팀장

★ 미주, 캐나다 무료전화 (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haram@haram.kr / www.huramkorea.com

Half Dome 산행 후기(김광식)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뵈옵고, 배우고, 실천을 다짐하며

아, 복권 당첨이다! 필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아주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기로 유명한 미국 제일의 국립공원인 Yosemite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Half Dome 정상 방문 허락을 받기 위해 산행예정일인 9월 14일, 이틀 전에 눈을 뜨자마자 구도자의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 제비뽑기에 신청하였다. 회의를 위해 LA방문에 나서는 길이었지만, 머리에는 온통 Half Dome 산행 계획과 그 기대로 흥분되어 있었다. 그날 늦은 오후 회의 도중에 이멜을 통해 허락 승인 소식을 받았다: "Celebrate your lottery award, and bring home an amazing story from your experience at Cables On Half Dome!" '안하면 죽을 수 없고, 하다가는 죽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산행 중에 하나' 로 알려진 Half Dome 산행 허가증을 막상 프린트 아웃하니 두려움의 긴장과 흥분의 설렘이 내 마음에서 교차한다.

Half Dome 정상은 해발 8,846ft (2,696 m), 발췌 높이가 4,737ft (1,447m)이고 마지막 섹션 400ft (120m)은 전설적인 화강암석으로 말 그대로 Half Dome이다. 산행 안내서에 따르면 길이는 왕복 14마일에서 17마일, 당일 소요 시간 10-14시간이다.

들머리에서

9월 14일 당일 이른 새벽, Yosemite Valley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Oakhurst 숙소를 떠나 Trailhead에 도착하니 오전 4:30분이다. 아직 캄캄한 이른 새벽이다. 머리에 Headlamp를 걸치고 불을 밝히며 첫 걸음을 내디디니 참으로 감개 무량하였다. 언제부터 꿈꾸며 걷고 싶었던 길이었던가? 미서부에 있는 미대륙 최고봉과 만년설 산도 오른 경험이 있었어도 이상하게도 그때보다도 더 긴장되고 한편으로는 더 흥분되었다. 아마 충분하지 않은 예비 훈련과 나이 탓이 두려움을 가지게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산을 찾다가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산을 배우게 된 것은 구도자가 되고 나서 가 아니었다. 산을 찾고 찾다 보니, 산행을 통해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그분의 거룩함과 섭리를 배우고 나서 나름대로 구도자가 되어 가고 있으니 감사하고 흥분하게 되었다.

두 개의 폭포를 지나며

Half Dome을 향하는 길에는 강력하고 격렬한 폭포, Vernal Fall과 Nevada Fall를 만난다. 비록 84층의 Empire State Building계단의 두 배를 오르는 발췌가 필요하긴 하지만 (600 이상의 자연석 계단), 그 보상은 노력한 만큼의 훨씬 이상이라고 말해지는 곳이다. 그러나 아직 캄캄한 이른 새벽인 관계로 두 개의 큰 폭포와 메세드 강을 따라 펼쳐지는 Yosemite Valley의 경관, Vernal Fall 정상

에서 317ft. 아래로 쏟아지는 숨막히는 전경은 애시당초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Mist trail을 따라 자연의 거대한 계단을 오르며 그 흐르는 강력한 물소리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내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필자가 섬기는 신은 시각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지 않고, 철저히 소리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엄청난 물소리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고, 그럴수록 그분의 거룩함을 눈으로 뵈옵는 것 같았다. 어느새 두 번째 폭포인 Nevada Fall 정상에 다달았다. 출발 지점에서 3.4마일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더 이상 Headlamp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날은 환해졌다. 걷는 이들도 거의 없었다. 그곳, 594ft.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의 우리 같은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그 거대함을 눈으로 목도하며 그야말로 경이로운 아침을 맞게 된 것이다. 오래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Half Dome Cables에 많은 이들이 들어다치기 전에 도착하여야 유리하다는 압박감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걷던 길을 재촉하였다.

Subdome으로 가는 길

Nevada Fall 정상 이후부터는 평탄한 Meadow의 길이었다. Little Yosemite Campground를 지나자 Sequoia로 명명된 거인 나무 숲을 통과하며 오르막을 경험하였다. Half Dome까지 2마일이라는 표시판이 보인다. 아직도? 힘을 내자! 곳에 따라 Half Dome이 나무 사이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분께서 힘을 주시는 방법이다. 자세히 보니 Cables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였다.

Subdome에 오르는 계단길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감사했다. Sierra-Nevada 산맥의 파노라마가 절벽과 깊은 U-계곡과 햇빛을 받아 더욱 빛을 발하는 화강암 봉우리들을 배경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Half Dome 정상에서

Subdome의 상단에서 Half Dome의 경사와 Cables 어느 정도인지를 가까이 볼 수 있었다. 시간은 오전 10시를 막 넘고 있었고, Cables에는 적은 수의 사람만이 매달려(?) 있었다. 등산화 끈을 다시 고쳐 매며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Cables를 잡았다. '발로 걷는다고 보다는 팔의 힘으로 온 몸을 당겨야 하는 곳으로 알려진' 매우 가파른 그곳을 통과하느라 힘이 들긴 들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앞 뒤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짚을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정상에 도착해보니 약 40분 정도 사투를 벌인 것 같았다.

정상에서 약 30분 이상을 머물면서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연출하시는 경이로운 세계에



감탄에 또 감탄하였다.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 가득하였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Cables에 도착하기 이전에 하강하면 좋을 것 같아 아쉬운대로 하산을 결정하였다. 아마 청년 시절, 특전사 군대 훈련 경험이 적용된 듯, 하강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

Yosemite Valley로 돌아오는 길 올라왔던 Mist Trail 그대로 되돌아 가서 Vernal Fall을 육안으로 목격하고 싶었다. 그러나 마침 그날은 오전 6:00시-오후 4:00까지 그 길이 닫혔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고, 1.5마일을 추가해서 걸어야 하는 JMT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보통은 경관과 난이도 때문에 Mist Trail로 오르고 JMT로 내려온다고 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기뻐했다. 그길로 내려오면서 약 1 mile 정도 줄곳 Half Dome의 반대편과 Nevada Fall의 경이로운 경관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길은 더 빨리 산행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조깅을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스위치백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느릿느릿 걸으며 오늘의 산행이 내게 무

슨 의미를 부여했나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Half Dome을 바라볼 때, 예전에 보던 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자리에 수 천년 동안 눈을 오나 비가 오나 천둥을 치거나 벼락이 떨어지거나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는 Half Dome이지만, 내가 변하니 그 Half Dome도 새롭게 보이며 내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 이 세상도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기 보다, 내가 먼저 변하여 희망과 평안의 시각과 방식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을 다져본다. 예언을 하나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산행을 하고 나면 다시는 Half Dome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결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산행 당일 한 주 전에, 이곳은 100도를 넘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었다. 그러나 그 날은 75도에 아주 맑은 날씨였다. 필자를 그곳으로 초대하신 그분께서 도우신 것이 분명하다. Trailhead로 돌아오니 오후 3시이다. 이는 나의 산행 역사에 있어 기억에 남을 큰 성과와 기쁨이었다. 그분의 거룩함을 뵈옵고, 그분을 거룩하게 배우게 된 성일이였다.



한미수교 140주년
KOREAN
Kimchi Festival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Hastings Park,
10 Lincoln St.
Lexington, MA

김치 김치 KIMCHI

- 김치만들기 체험
Kimchi Recipe & Demonstration
- 배추김치 판매
Kimchi sales
- 팍두기 판매
Radish kimchi sales
- 총각김치 판매
Bachelor Kimchi sales

K-FOOD

- 불고기덮밥
Bulgogi Rice
- 김밥
Kimbap
- 떡볶이
Spicy Rice Cake
- 김치전
Kimchi Pancake
- 만두
Korean Dumpling
- 잡채
Jabchae

한복입고 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Gift for wearing your hanbok



볼거리 & 놀거리
Share Korean Culture

- 국기 태권도시범
Tae Kwon Do Performance
- 민속무용
Traditional Korean Dance
- 노래 와 춤 K-pop
K-pop Sing & Dance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Korean Game
- 매운것 먹기
Try K Spicy & Traditional Foods
- 영어이름 한글로쓰기
Write Your Name in Korean
- 제기차기
Jegi Kick
- 박터치기
Korean Pinata party
- Raffle Game



주보스톤대한민국총영사관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매사추세츠한인회

보스톤코리아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